

당신은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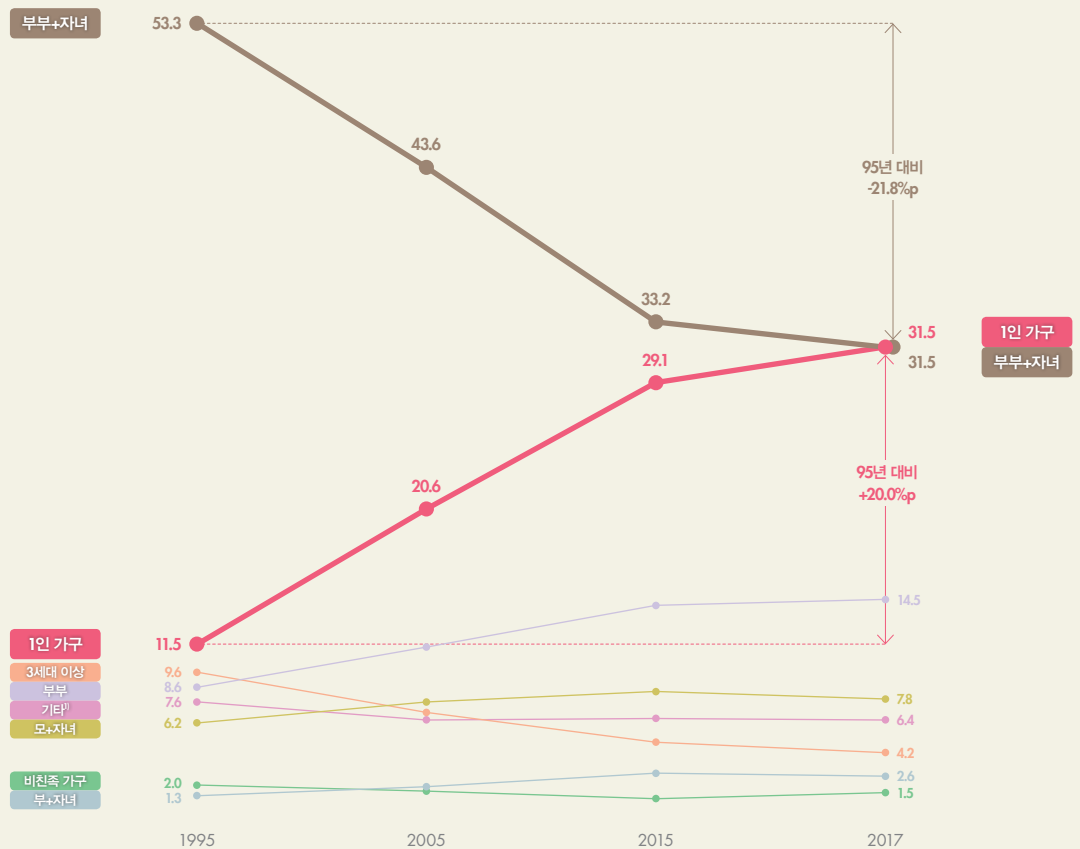
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하면 결혼과 핏줄에 기반한 ‘엄마, 아빠, 자녀’를 떠올렸다. 그러나 최근 가족의 특징적 변화를 꼽는다면 단연 ‘다양한 가족의 증가’일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함께 감정을 나누며 사는 ‘사회적·정서적’ 가족이 늘면서 가족의 개념과 형태, 의미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금부터 가족 구성의 변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살펴보자.

‘부부+자녀’ 가구 대폭 줄어, 1995년 53.3% → 2017년 31.5%

대전의 ‘가구유형별 가구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995년 11.5%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 31.5%로 가장 많이 늘어난 가구형태(+20.0%p)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995년 8.6%를 차지했던 ‘부부’가구 비율은 2017년(14.5%) 5.9%p 상승했으며, ‘모+자녀’는 1.6%p, ‘부+자녀’는 1.3%p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전형적인 가족유형으로 여겨졌던 ‘부부+자녀’는 2017년 31.5%로 1995년(53.3%)에 비해 2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서 ‘3세대 이상’ 가구 비율이 1995년 9.6%에서 2017년 4.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기타’(1995년 7.6%, 2017년 6.5%, 1995년 대비 -1.2%p)와 ‘비친족 가구’(1995년 2.0%, 2017년 1.5%, 1995년 대비 -0.5%p)는 미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가구유형별 가구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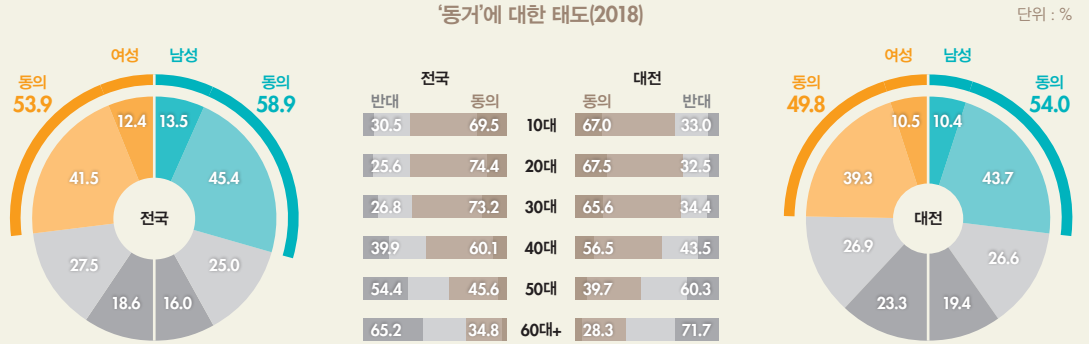


1)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등 포함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내국인과 함께 살고 있어 일반가구로 조사된 외국인도 포함하여 집계
*3세대 이상 가구 비율은 4세대 이상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혼 없는 동거’에 찬성하는 대전 여성 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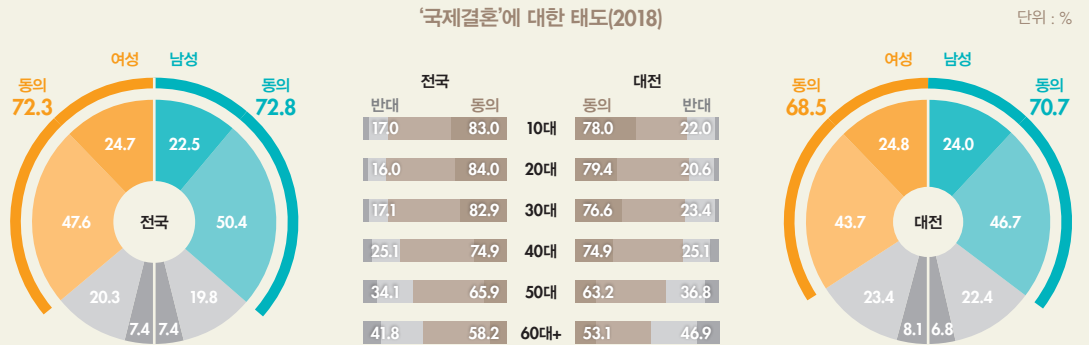
‘동거’에 대해 대전 여성 49.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전국 여성(53.9%)보다 4.1%p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 54.0%가 ‘동거’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전국 남성 대비 4.9%p 낮은 비율이다. 대전과 전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전의 20대는 ‘동의’ 67.5%, ‘반대’ 3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동의의 비율이 높았고, 전국도 20대(동의 74.4%, 반대 25.6%)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
- 약간 반대
- 전적으로 반대



대전 여성 68.5%, 남성 70.7%, ‘국제결혼’에 동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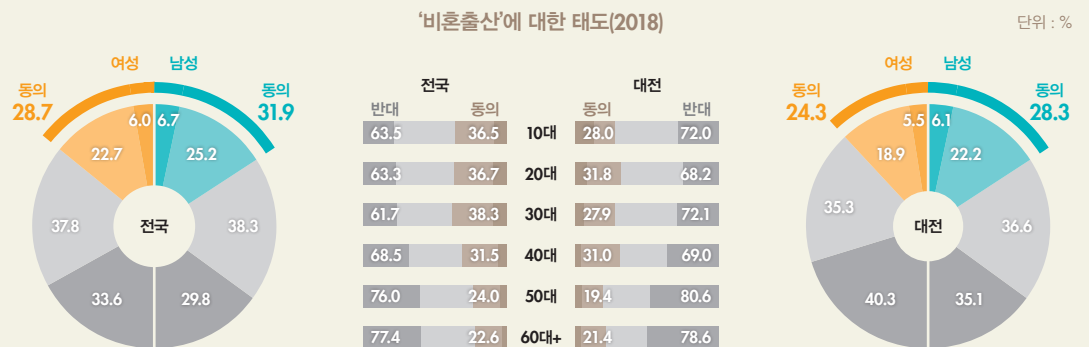
대전의 13세 이상 여성 중 68.5%가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긍정적 응답을 한 남성은 70.7%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전과 전국 둘 다 20대의 ‘국제결혼’ 동의 비율(대전 79.4%, 전국 84.0%)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대전은 10대(78.0%), 30대(76.6%), 40대(74.9%), 50대(63.2%), 60대(53.1%)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대전여성 4명 중 1명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대전 여성 24.3%, 남성 28.3%가 동의해 여성보다 남성이 ‘비혼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국 또한 비혼출산에 긍정적 의사를 내비친 남성(31.9%)이 여성(28.7%)보다 많았다. 대전은 20대(31.8%)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전국은 30대가 38.3%로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 입장을 보인 비율이 높았다.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문항으로 10대는 13~19세를 말함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 비율을 합해 ‘동의한다’로 ‘약간 반대’와 ‘전적으로 반대’ 비율을 합해 ‘반대한다’로 해석함
 *점수는 4점 척도로 평균한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도 높은 것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성별, 연령별 동의 정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동거, 국제결혼, 비혼출산 세 가지 모두에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나눔



입양에 긍정적인 비율 청년층에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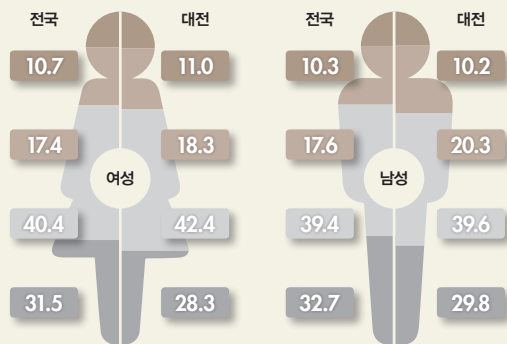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됨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와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 고려해보겠다” 비율을 합해 “입양할 의사가 있다”로 해석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19세 이상 대전의 남녀 응답자 중 “입양 할 의사가 있다”고 한 여성은 29.3%, 남성 30.5%로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 부정적 입양의사를 보인 여성 42.4%, 남성 39.6%,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여성 28.3%, 남성 29.8%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은 긍정적 응답을 한 여성(28.1%)이 남성(27.9%)보다 많았으며, 부정적 입장을 비춘 여성 40.4%, 남성 39.4%,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여성 31.5%, 남성 32.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전은 19~29세(35.0%)의 긍정적 입양의사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30대(34.4%), 40대(27.9%), 60대 이상(28.4%)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24.1%로 가장 낮았다. 전국도 19~29세(32.5%)가 가장 높았으며, 30대 29.5%, 50대 28.2%, 40대 27.9%, 60대 이상 23.7% 순이었다. ‘입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견주어 볼 때 입양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확산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입양’에 대한 견해(2018)

단위: %

-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
-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
- 입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 잘 모르겠다



연령대	전국	대전
19~29세	36.9, 30.6, 32.5	35.0, 32.5, 32.5
30대	28.0, 42.5, 29.5	34.4, 42.3, 23.3
40대	25.5, 46.6, 27.9	27.9, 46.5, 25.5
50대	30.8, 41.0, 28.2	24.1, 47.0, 28.9
60대+	37.9, 38.3, 23.7	28.4, 38.2, 33.4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 젠더콜로키움 # 네트워크 # 젠더불평등

제2회 젠더 콜로키움 (통합 13회)
 맛있는 사고에 주름을 잡다

네트워크로 본 젠더 불평등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열린 젠더 콜로키움에서는 『네트워크로 본 젠더 불평등- 선택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이원재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원재 교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나타난 친구 네트워크 변화 과정에서의 성차, 여성과 남성의 네트워크 형성 차이, 인간관계에서 서열과 지위의 중요성 등에 주목했다. 참여자들은 젠더 연구를 함께 있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젠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원재_카이스트문화기술대학원 교수

